

일. 부활하신 예수님

❖ 부활은 역사적인 사건입니까? (고전 15:1-11)

- 고린도 교인들의 부활에 대한 의문을 답하기 전에, 바울은 그들에게 다시한번 복음이 어떻게 역사하는지 말해줍니다(고전 15:1-2): 복음을 전함 → 듣고 → 믿고 견디면 → 구원받음.
- 어떤 복음을 전했습니까? (고전. 15:3-4):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심 → 그리스도께서 무덤에 묻히심 → 그리스도께서 삼일만에 살아나심.
-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역사적 근거가 있습니까? 부활하신 예수님을 누가 보았습니까? (고전 15:5-8)? : 베드로와 열두제자들 → 오백명 이상 형제 자매들 → 야고보와 사도들 → “보잘것 없는” 바울.
-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이 ‘성경에 적힌 대로’ 하나님께서 하신 일임을 분명히 밝힙니다. 즉, 부활은 복음의 핵심이자 예언된 계획입니다. 의심하는 분들은 당시 살아 있었던 증인들에게 물어보십시오!

이. 예수님의 부활의 결과(여파/파장)

❖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? (고전 15:12-19)

- 부활을 부정하는 것은 기독교 신앙과 일치하지 않습니다. 왜냐하면 “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께서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을 것이기” 때문입니다(고전 15:12-13). 그리고 만약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...
 - (1) 복음을 전하는 것이 헛것, 즉 의미 없는 일일 것입니다 (고전. 15:14a)
 - (2) 우리의 믿음도 헛것, 즉 의미 없고 (고전. 15:14b) 쓸모없는 짓일 것입니다 (고전. 15:17a)
 - (3) 우리는 거짓증인이 되며 (고전. 15:15)
 - (4) 여전히 죄 가운데 살 것입니다 (고전. 15:17b)
 - (5) (예수님의 믿음 안에서) 죽은 자들은 결코 다시 살아나지 않을 것입니다.(고전 15:18)
-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은 아무런 이유 없이 살해당한 억울한 한 의인일 뿐이며, 우리를 구원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. 그러나 “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”(고전 15:20a). 우리에게 살아 계신 구원자가 계십니다.
- 그렇기에 복음은 정당하며, 우리의 믿음도 옳은 것입니다. 우리는 신실한 증인이고, 우리의 죄는 사함을 받았으며,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은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.

❖ 예수님의 부활이 보장하는 것은? (고전 15:20-34)

- 예수님의 부활이 첫째로 보장하는 것은, 아담으로부터 세상 마지막까지 구원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모든 사람들은 죽더라도 다시 부활한다는 것입니다(고전 15:20-23).
- 우리가 부활할 때 어떤 사건들이 일어날까요?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심으로 그분의 모든 원수들을 정복하실 것입니다(고전 15:25-26). 그리고 예수님은 모두를 아버지 하나님께 복종시켜, “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거하시” 하실 것입니다(고전 15:24, 28).
- 이런 미래를 위한 보장 외에도, 바울은 우리의 일상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두 가지 보장을 알려줍니다:
 - (1) 고난과 위험을 당하더라도 복음은 전할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. (고전. 15:30-32)
 - (2) 성경의 원칙을 실천하는 삶을 살 가치가 있습니다(고전. 15:33-34)

삼. 우리의 부활

❖ 우리는 어떤 몸으로 부활할까요? (고전 15:35-49)

- 바울은 현재의 몸과 부활의 몸을 설명하기 위해 네 가지 비유를 사용합니다:
 - (1) 식물 (고전. 15:35-38): 씨앗을 심고; 곡물을 수확하거; 하나님께서 곡물마다 원하시는 형체를 주심
 - (2) 육체 (고전. 15:39): 사람의 몸; 동물; 물고기; 새의 몸
 - (3) 영의 몸 (고전 15:40-41): 태양의 영광; 달의 영광; 별들의 영광; 천체 각자의 영광(광채)
- 현재의 몸과 부활한 몸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? (고전. 15:42-44? (고전. 15:42-44)
 - (1) 현재의 몸: 부패됨, 천함; 연약함; 육체
 - (2) 부활의 몸: 부패하지 않음; 영광스러움; 강함; 영의 몸
- 첫 아담은 이 세상의 육체를 가졌지만, 제 2의 아담이신 예수님은 하늘의 몸을 가지셨습니다. 부활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의 형상으로 변화될 것입니다. 즉, 썩지 않고, 영광스럽고, 강하며, 신령하고, 하늘의 몸으로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(고전. 15:45-49).

❖ 언제 우리가 부활할까요? (고전 15:50-58)

- 바울은 부활의 시기와 어떤 몸으로 부활할 지를 말하기 전에 “살과 피는 하나님의 나라를 물려받을 수 없다”(고전 15:50)고 말합니다. 우리가 부활할 때 육체적인 몸이 없을 것이라는 뜻일까요?
- 여기서 살과 피(flesh and blood)는 ‘사람’을 말합니다(마 16:17; 갈 1:16; 엡 6:12; 히 2:14). 바울은 ‘이 땅에 사는’ 사람들의 몸은 ‘썩을’ 것이지만 ‘하늘에 사’는 사람들의 몸은 ‘썩지 않는다’고 역설합니다. 우리는 썩어 없어질 육체에 살고 있으며, 따라서 그 육체로는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.
-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, 썩을 몸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의 몸과 같이 썩지 않을 몸으로 변화될 것입니다(고전 15:51-55; 눅 24:36-40).
- 예수님 안에서 잠든 사람들은 부활할 때 한순간이 지난 것처럼 느낄 것입니다. 불과 1 초 전에는 죽음의 싸늘함을 느꼈으나, 이제는 오시는 예수님을 볼 것이기 때문입니다(고전 15:52).